

충전중 화재 잇따라...전동킥보드 위험경보

송정동 아파트 2명 사망 일가족 참사 등 광주 읍들어 3건 신속·경제성에 이용자 지속 증가...市소방본부 주의 당부

전동킥보드 배터리 충전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킥보드는 대부분 사용후 새벽이나 심야시간대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택내 발화시, 대처가 늦어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신속성과 경제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배터리로 인한 화재도 올해만 3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에 있다.

19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12일 새벽 광주시 광

산구 송정동 아파트 화재에서 전동킥보드 충전과정에 불이나 2명이 사망하고,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대체로 크기가 작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 또 인화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데다 과충전으로 배터리 내 과전압·과전류가 생겨 폭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게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4월 광산구 한 주택에서 전동기기 충전 중 배터리 과충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2600여만 원의 재산피해 발생하는 등 올해만 3건의 화재가 됐다. 이를



광주의 한 전동기기 대여점에서 충전중이던 전동킥보드에 화재가 발생한 장면.

비롯해 광주에서만 최근 3년간 전동기기에서 9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 소방본부는 전동기기를 충전할 때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실내 충전을 삼가고, 취침 중 충전을 피해야 하며 ▲반드시 인증받은 안전한 정품을 사용해야 하고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

되거나 고온의 환경을 피하며 ▲동절기 실내로 들어올 때는 배터리 내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시간이 지난 후 충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소방본부는 공동주택 및 판매업체에 전동킥보드의 과충전 폭발 위험성에 대해 홍보·계도 활동에 나선다.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많은 시간대에 직접 방송을 통해 위험성을 홍보하고, 소방청과 국립소방과학연구원에 요청해 공동으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재현실험을 하는 등 사후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황기석 광주시 소방본부장은 “전동킥보드는 편리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배터리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며 “사용자 스스로가 사용법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붉은 그리움...산자락 물들인 상사화

서로 떨어져 만나지 못하는 붉은 그리움, 꽃무릇(상사화)이 힐링군 해보면 용천사 산자락을 붉게 물들였다. 용천사에서는 21일부터 꽃무릇 큰잔치가 열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섬진강 두꺼비 지켜주세요”

광양녹색연합 로드킬 표지판

매년 산란을 위해 도로를 건너다 때죽음을 당하는 ‘섬진강’ 두꺼비를 보호하기 위한 표지판이 설치됐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섬진강에 서식하는 두꺼비의 서식지 보호와 로드킬(road kill) 방지를 위한 도로표지판을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지난 18일 두꺼비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섬진강변 1km 구간에 8개의 주의 표지판을 세웠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로드킬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 구역에서는 주로 산에 서식하는 두꺼비가 매년 2-3월 산란을 위해 도로를 건너며 차량에 밟혀 죽는 일이 발생하는 곳이다. 또 매년 5-6월에는 새끼두꺼비들이 무리지어 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때죽음을 당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인공지능 활용 모형 개발...엘니뇨 예측 2배 앞당겼다

전남대 함유근 교수 연구팀 강도까지 진단...재난 대비 도움

전남대 함유근(사진) 교수팀이 기상이변의 주범인 엘니뇨 현상을 기존보다 거의 두 배나 빨리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및 재해에 대한 대비 능력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또 기후예측에 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해 예측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함유근 교수(제1저자)와 김정환 박사 과정생이 주도한 연구팀은 엘니뇨 현상의 발달 여부 및 강도를 기존보다 10개월 이상 빠른 18개월 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엘니뇨의 중장기 예측(Deep learning for multi-year ENSO forecasts)’이란 제목의 연구논문은 19일 세계적 학술전문지 ‘네이처’ 온라인 판에 실렸다. 1주일 후에는 인쇄판에도 게재된다. 기존의 엘니뇨 예측모형들은 통상 8-9

개월 전에 대해서만 엘니뇨의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데, 타입별 구분 기능도 미약해 엘니뇨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가뭄, 홍수, 식량 확보 등 지구촌의 각종 재난, 재해 대비가 쉽지 않았다.

합 교수팀이 개발한 예측모형은 엘니뇨의 발생 여부를 물론 강도까지 미리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지구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양상이 크게 다른 중태평양 엘니뇨(2000년대 이후 자주 발달)와 동태평양 엘니뇨(2000년대 이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적어도 12개월 전에는 예측할 수 있다. 기존



모형은 두 타입의 구분이 미약한데다, 예측기간도 6개월에 불과했다.

합 교수는 “이 예측모형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딥러닝 기법 중 이미지 인식에 주로 활용되는 합성곱 신경망 기법을 응용, 엘니뇨를 유발하는 다양한 기후현상들의 핵심패턴을 성공적으로 인식시켰기 때문”이라며 “이번 연구의 또다른 성과는 향후 엘니뇨는 물론 다양한 기후현상 예측에도 인공지능 도입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인 점”이라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8 해질 18:33 달뜨기 22:10 달지기 11:35

태풍 대비 철저

차차 흐려지다 비 오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림	16/26	보성	흐림	12/25
목포	흐림	17/26	순천	흐림	15/27
여수	흐림	19/25	영광	흐림	15/26
나주	흐림	13/27	진도	흐림	16/26
완도	흐림	17/26	전주	흐림	15/26
구례	흐림	13/26	군산	흐림	16/25
강진	흐림	14/26	남원	흐림	14/25
해남	흐림	13/26	흑산도	흐림	18/22
장성	흐림	14/2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0~3.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1.0~2.5	북동~동	2.0~3.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5~2.5	북동~동	2.0~3.0

◇생활지수

경고	식중독
보통	자외선
좋음	미세먼지

◇물때

목표	간조	만조
	10:40	05:29
23:09	18:07	
여수	05:57	12:29
	18:23	--:--

◇주간 날씨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	☁	☁	☀	☀	☀	☀
18/21	18/23	17/25	16/26	15/26	16/26	16/25

주말 태풍 영향권...강풍 동반 많은 비

주말인 21일부터 23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은 제17호 태풍 ‘타파’(TAPAH)의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470km 부근의 해상에서 열대 저기압이 제 17호 태풍(중심기압 996hPa·최대풍속 18%·강풍 반경 200km)으로 발달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매우 유동적이긴 하지만, 22일 새벽 3시 제주도 서귀포 남쪽 약 330km 해상을 지나 22일 오후 3

시께 동영 남남서쪽 170km부근을 통과해 남해안과 일본 사이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전남에 가장 근접하는 시기는 22일 오후경으로 전망된다.

태풍의 진로와 무관하게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규모와 강도가 큰 탓에 21일부터 23일까지 광주·전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50~100mm(남해안 일부 지역 300mm 이상)정도 비가 내리고, 25%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정병호 기자 jusbh@

류동운 열사 아버지 류연창 목사, 아들 곁에 영면

망월동 민주열사묘역 이장식

5·18 옛 전남도청 최후의 시민군 류동운 열사의 아버지이자 광주·대구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류연창 목사가 아들 곁에 영면했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광민회)는 19일 오후 광주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고(故) 류연창 목사 이장식을 열었다.

경북 대구 출신인 류목사는 앞서 지난 7월 5일 고향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류동운 열사는 1980년 한국신학대학교 2학년을 다니던 중 광주소식을 듣고 내려와 항쟁에 참여하다 계엄군의 도청 진압작전 때 총탄에 맞아 숨졌다.

민주화운동단체들은 류 목사를 아들(국립5·18민주묘지 1묘역 2-45)이 잠든 광주에 안장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이장식을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